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 도심 공원에 누워 스위스 하늘 바라보기 현지인들이 풀밭에 누워 한가로이 책 읽거나, 도란도란 피크닉 하러 가는 공원

스위스 도심 속 초록 공원

스위스 도시는 반드시 자연을 품고 있다

책 한 권 들고 공원 찾은 현지인들

근사한 피크닉 바구니 예약해 공원 데이트하는 커플들

풀밭에 누워 하늘 보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가족들

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는 그 날이 와서, 스위스로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날을 꿈꾸며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로 스위스 도심 속 공원을 소개한다.

스위스에는 많은 도시가 있고, 그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도심 근처에 초록 정원과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해 주며 현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간단한 피크닉을 즐기거나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이들도 많다. 도시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스위스 공원을 소개한다.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초록 공원에 누워 스위스 하늘 바라보기.

1. 취리히(Zurich)의 취리히호른(Zürichhorn) 공원과 중국 정원(Chinagarten)

취리히 호수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면 초록의 공원이 여럿 등장하는데, 여름철이면 항상 분주한 공간이다. 인라인스케이트, 수상 스포츠, 장신구 판매, 스트리트 아트를 위해 모인 이들로 항상 다채롭다.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원한다면 호숫가 산책로 끝자락에 있는 취리히호른 공원과 근처의 중국 정원을 찾아 일상을 벗어나 볼 수 있다.

2. 루체른(Luzern)의 리하르트 바그너 박물관(Richard Wagner Museum) 공원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곳 루체른 호숫가에서 6년 동안 살았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박물관은 호숫가와 접한 드넓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기막힌 산봉우리 풍경이 펼쳐진다. 루체른에서 30분만 걸으면 이 공원에 닿을 수 있는데, 호숫가 산책로만 따라가면 돼, 어려운 것 없다.

3. 베른(Bern)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베른의 장미 정원, 로젠가르텐은 꽃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휴식을 취하기 완벽한 장소다. 언덕 위 명당자리에 자리한 레스토랑에 앉아 베른의 아름다운 구시가 전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4. 빈터투어(Winterthur)의 오스카 라인하르트 박물관 공원(Oskar Reinhart Museum Park), “암 뢰머홀츠(Am Römerholz)”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박물관 정원에 앉아 잠시 즐거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빈터투어에 있는 오스카 라인하르트 박물관에 있는 공원이다. 거대한 밤나무와 야외 조각상이 초록 공원 곳곳을 장식한다. 잠시나마 시간을 느리게 흐르도록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5.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의 무노트 로젠가르텐(Munot Rosengarten)



라인 폭포로 유명한 마을, 샤프하우젠에도 장미 정원이 있다. 무노트 요새 입구 바로 옆에 있는데, 2,000m² 나 되는 공간에 장미가 피어난다. 1981년 스위스 장미 애호가 연합이 샤프하우젠 마을 원예원과 함께 프렌치 르네상스 가든 스타일로 디자인한 공원이다.

6. 바덴(Baden)의 빌라 랑마트(Villa Langmatt) 공원

빌라 랑마트 공원은 그 자체가 예술품 같아, 낭만적인 피크닉을 원하는 스위스 연인들 사이에 인기다. 사전에 예약을 하면 바덴의 전통 빵, 스페니쉬브로들리(Spanischbrödtli)가 포함된 피크닉 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맛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7. 바젤(Basel)의 파크 임 그뤼넨(Park im Grünen)

바젤 도시 외곽에 자리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아스팔트 트레일은 걷기 운동자나 스케이트 및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 야깁 받는다. 스포츠 시설과 놀이터도 갖춰져 있고, 초록의 공간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8. 벨린초나(Bellinzona)의 파르코 디 빌라 데이 체드리(Parco di Villa dei Cedri)

빌라 데이 체드리를 에워싸고 있는 공원은 현재 시립 현대미술관이 자리한 곳으로, 19세기 영국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 빌라 뒤로 조성된 포도밭도 또 다른 볼거리로, 티치노(Ticino)에서 유명한 메들로 품종이 자라난다.

9. 쿠어(Chur)의 폰타나(Fontana) 공원

폰타나 공원은 쿠어 한복판에 있다. 도심의 분주함을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책 한 권을 들고 나온 현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10. 제네바(Geneva)의 파크 라 그랑쥬(Parc La Grange)

라 그랑쥬 공원은 오비브(Eaux-Vives) 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독특한 호수의 경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꽃 정원이 12,000m²에 걸쳐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200종류가 넘는 장미가 피어난다.

11. 로잔(Lausanne)의 에르미타쥬(Hermitage) 공원

그림 같은 시골풍 공원에서는 로잔 최고의 전망대 중 하나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경의 파노라마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여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자체로 찾아볼 이유가 충분한 존재다. 독특한 생김새의 수양버들로, 저택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다. 19세기 중반에 심어진 나무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곳이다.

12. 루가노(Lugano)의 파르코 산 미켈레(Parco San Michele)

산 마켈레 공원은 루가노 위쪽에 있어, 도시와 호수, 산의 전망을 아름답게 선사한다. 남국 특유의 식물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을 설레게 만든다.

<https://www.myswitzerland.com/en/experiences/cities-culture/listicles/parks-close-to-the-city/>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